

제목	캡스톤 디자인 3회차 회의록
작성자	20140556 송인우
목적	캡스톤 디자인 초안 발표 준비
참여 인원	김태우, 이창훈, 최태훈, 송인우, 오준섭
일시	2019-03-27, 수요일 / 14:00~15:00 (약 60분간 진행)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대학 433호
회의 내용	<p>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초안 발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다. 사전에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전달할 내용과 수정할 내용을 구분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 작업에 있어서는 이창훈 학생이 피피티를 전반적으로 다 만들었고, 오준섭, 최태훈, 내가 보완을 하였다.</p> <p>우리가 강조해야하는 작년과의 차별성에 대해 단순화하였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제 조건이 다르므로 질문 받을 내용에 지레 겁먹지 않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도 우리 조원들이 생각하공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각자가 명확하게 찾아오기로 하였다.</p> <p>현 상황에서 문제점은 코딩작업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미루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자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를 느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만 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찾아보지 않은 티가 나는 사람이 있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모임부터는 모여서 찾은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진전이 있기로 합의하였다.</p> <p>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보이므로 각자 찾은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유된 내용 빈도를 보면 이창훈 > 나 > 오준섭 > 최태훈 > 김태우 순으로 공유하고 있다. 참여가 저조한 두 명을 더 끌어 올릴 필요성을 느꼈다.</p> <p>앞으로 질문 답변에 대한 정리는 김태우 학생이 하기로 합의 보았다. 사소한 거지만 같이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듯 싶다.</p>

향후 전망	<p>화요일 6~9시 / 금요일 9~12시 / 일요일 18시 이후 이 세 시간을 고정하여 만나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현해보는 작업을 하기로 합의 보았다. 여기서도 빼는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받기로 했다.</p> <p>주변인들을 활용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시금 점검해보기로 했다 여기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약간 남이 해주겠거니 하는 태도가 종종 보여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고칠 생각이다.</p>

제목	캡스톤 디자인 4회차 회의록
작성자	20140556 송인우
목적	캡스톤 초안 발표 이후 보완점과 해야할 부분 할당
참여 인원	김태우, 이창훈, 최태훈, 송인우
일시	2019-03-31, 일요일 / 18:00~21:00 (약 3시간분간 진행)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가온관
회의 내용	<p>오준섭 학생은 집이 멀기도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주말 모이는 자리였으므로 안와도 되는 것으로 합의 보았다. 이전에 자료를 많이 공유하였으므로 제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p> <p>사소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이점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웠다. 오늘은 넘어가지만 다음에 패널티를 분명히 하기로 하였다.</p> <p>각자 찾은 내용 정리해보면</p> <p>김태우 : ※별다른 거 가져오지 않음 / 자료만 읽어옴 이창훈 : 셀 개수 조절하는 코딩 자료 소스 가져옴 최태훈 : 기존 자료에 맵 크기 일부 조절하는 방법과 코딩지 해석 송인우 : 기존 자료에 배 형상의 이미지 첨부하여 구현함</p> <p>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존 자료에서 조금씩이나마 수정한 상황을 끄집어와서 비교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코딩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 괜찮은 자료에서 조금씩 바꾸어 가는 과정을 하기로 하였다.</p> <p>내가 주말간 고민한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하여 각자 할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각자가 코딩이라는 이름하에 회피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p> <p>해야할 내용 5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볼 번짐에 대한 함수 구현 -> 김태우 EX) 시간 조건 함수식이나 일정확률로 퍼지는 조건 함수식 찾아오기 2. 초기 위치 입력 방식 구현 -> 송인우 EX) 클릭 방식 또는 현위치를 좌표로 입력 방식

	<p>3. 각 셀마다 이동 시 시간 계산-> 이창훈 EX) 1초에 한 셀씩 이동한다고 하고 이동 셀 개수만큼 시간 표현</p> <p>4. 최적의 경로외에 2차, 3차의 경로 확인 -> 최태훈 EX) 최적 경로 외 차순의 경로를 제시</p> <p>5. 일정 경로를 따라 이동 중, 새로운 지점 입력받아 계산 -> 오준섭 EX) 불 번짐(방해물)으로 인해 새로운 경로 도출</p> <p>위처럼 해야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로 했다.</p>
향후 전망	<p>4월 첫째주를 활용하여 지도교수이신 남종호 교수님을 찾아 뵙기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의를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p> <p>유튜브에서 본 A star 알고리즘 영상에 대해 자문에 대한 메일을 기다리고 있다. 답이 오면 각자 일부분씩 맡아서 구현해볼 예정이다.</p>